세상을 밝게 비출 우리들의 아이들

문화향기

이미경
사)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원장

“교수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멋진 아쿠아리움을 만드는 것이 꿈이예요” 대학 합격을 기다리면서 오후에 발표된 00학교의 불합격 소식으로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하지만 미소를 띄면서 A가 이야기 한다. 물고기를 좋아해서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아쿠아리움에 와서 밝게 웃고 좋아할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만들고 싶어요.” 아! 감탄이 절로 나왔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한 거야? 대단하다. 놀라워”하면서 내 마음이 훈훈해졌다.

2년 전 겨울에 처음 만난 아이는 세상이 올바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부터 많이 힘들어하고 상처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가녀린 소녀였다. 불의와 타협하려는 어른들이 싫고, 여자라서, 청소년이라서 참아야 하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았다. 문학책을 좋아하고 수학에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제도권학교 안에서 적응이 힘들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2년여를 아프게 지내다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입시를 준비하게 됐다. 생각만으로도 힘든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알게 되면서 수학성적을 9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려놓았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작년에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서 재수를 선택하고 열정을 다해 공부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갔다.

눈물도 많고 마음이 여린 아이는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자신을 완성해 나갔다. 왼손잡이 인데도 필체가 너무나 좋은 아이의 요점 정리한 공책을 보면서 감탄했다. 일일계획표를 작성해 실행에 옮겨가면서 힘들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드디어 수학능력시험을 보고 원하는 대학에 논술고사를 보면서 떨리고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겨냈다. 수능을 마치고 우리 쉼터랑 학교밖청소년에게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돈을 버는 일은 다음에 하고 순수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아이에게 한 없이 감사한 마음이었다.

12월8일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 아무래도 서울집회에 갔다 와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어제 탄핵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서 잠도 못잤다는 아이에게 서울집회에 다녀온 선배로써 이것저것 일러주었다. 무엇보다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정말이지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였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끼리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서로를 보호하고 나눔을 솔선수범하면서 잘 왔구나 생각하고 왔다고 하였다. 항상 자신의 삶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수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024년 12월3일은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의미 있는 날인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시간이 흘러 대학 합격자 발표가 시작되었다. 기적은 노력하는 자에게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도 원하던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된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울면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다. 이게 생시인가? 싶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했다.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운 아이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 너무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가 또 다른 세상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세상의 참된 리더가 될 수 있게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어야 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힘든 아이들을 보면서 따뜻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가 만들어 갈 아름다운 세상이 기대된다. 형형색색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랑살랑 자유롭게 노니는 아이의 아쿠아리움 앞에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그려진다. 아직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청소년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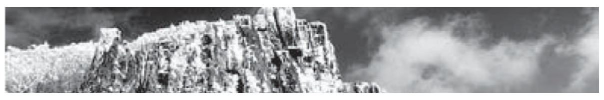
세상은 살아 볼만한 곳이라고.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2024년!! 정말 내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졌다. 다가올 2025년이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기도해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배우 이병헌(왼쪽부터), 감독 황동혁, 배우 이정재가 16일(현지시각) 미 뉴욕주 뉴욕의 메트로그래프에서 열린 시사회에 도착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연두색 넥타이

“선배님~.” 70~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 대학생이었던 386 인사들이 부르는 그의 호칭이다. 3선 국회의원, 장관,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을 지낸 분이지만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정치권 후배들에게 ‘선배’로 불렸다. 1980년대 민주화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을 생각하면 아마도 그에 대한 존경이 담긴 표현일 것이다. 그가 바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인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다.

그는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표, 고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로 불렸다. 1971년 서울대 내란 음모 사건, 1974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배됐고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초대 의장을 역임했다. 전두환 정권이 민청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김 상임고문은 1985년 9월 안기부 남영동 분실로 끌려간다. 그곳에서 그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23일 동안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당했다. 매일 5시간 동안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그는 말과 행동이 어눌해지는 파킨슨병을 앓게 됐다.

회복할 수 없는 병을 얻었지만 민주화를 위한 그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2008년 미국 쇠고기 완전수입 반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주택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번복한 노 대통령에게 “계급장을 떼고 제대로 논쟁하자”고 요구했고,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FTA를 통과시키려면 나를 밟고 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12월 30일 고문의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계했다. 향년 64세. 그는 전태일 열사, 문익환 목사, 박종철 열사 등 민주화·노동운동가들이 묻힌 모란공원에 잠들어 있다.

영면에 들어간 그가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2024년 소환됐다. 그를 정치적 스승으로 모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전 상임고문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착용하면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 의장은 다음 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14일 탄핵안 표결을 이끌어 냈다. 그는 양일 모두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우 의장은 SNS에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고 했다. 고문을 이겨내며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지켜나갔던 민주주의자인 김근태는 잠들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려는 순간, “선배”라 부르며 그를 따랐던 후배 정치인들이 이제 그를 대신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김성수 논설위원

社 說

12·3사태 막은 5월정신 헌법 수록돼야

우원식 국회의장 추진 약속

12·3계엄 사태 때 ‘월담 리더십’을 보여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에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및 5·18 관련단체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접견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독재자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운영되는 ‘국민의 나라’”라며 “지난 12월 3일, 국민이 피와 땀, 눈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그 뜻을 받들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광주의 오월정신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고, 6월 항쟁과 촛불혁명, 그리고 이번 ‘빛의 혁명’으로 계승됐다”며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오는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80년 5월 광주의 주먹밥 나눔이 여의도 국회의 음식점·카페 선결제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광주정신’으로 이어졌다”며 “내년 5월 광주를 방문해서 5월 영령들께 인사드리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맞물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제1회 5·18 정신 계승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신계승위는 광주시를 비롯해 5·18 관련단체와 학계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비상계엄령 사태는 민주공화제의 역사를 45년 전으로 후퇴시킨 참혹한 일이다. 전두환 일당이 일으킨 1979년 12·12 내란 사태를 재현하고, 1980년 5·18의 광주 아픔과 참혹함을 다시금 일으킬 뻔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계엄군을 막아서며 12·3사태를 저지했다. 5월 광주정신을 계승한 국민들의 용기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하지만 사회혼란을 틈탄 무리들이 언제든지 내란 음모를 꾸밀 수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이 기필코 이뤄져야 할 것이다.

빈틈 없는 재시공으로 안전·신뢰 되찾길

현산, 해체 완료 후 이달 재시공

시공 도중 붕괴 사고로 전면 작업중지에 들어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해체 공사가 마무리됐다. 시공사는 해체 공사 완료 직후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 조만간 재시공에 나설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고층 아파트를 17개월만에 별다른 사고 없이 해체하고 재시공에 나설 수 있게 됐다니 다행한 일이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는 공사 중 외벽이 무너져 근로자 7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후진국형 참사였다. 해체와 재시공까지의 과정도 험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 4개월 여 만인 지난 2022년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롭게 짓겠다고 밝힌 이후 계획 검토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일부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지상 주거층만 철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로 전면 철거 후 재시공으로 공법이 변경됐고 이후 공기 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을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이 입장을 바꾸면서 상가층을 그대로 둔 채 주거층만 지어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산은 주거층 해체 완료 후 상가층 등 남아있는 일부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1·2단지 모두 구조안정성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재시공 과정에서도 레미콘 품질과 콘크리트 강도 등에 대한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비용을 투입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지역민에게 내놨다. 완공을 앞둔 건물을 모두 허물어뜨린 뒤 다시 짓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낸 현산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다. 비용을 떠나 입주민은 물론이고 지역민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절차다.

이제 시작이다. 사상 유례 없는 해체 공사는 무사히 끝났지만 재시공이라는 더 큰 난제는 지금부터 출발이다. 현산은 반세기 가까이 쌓아온 주택 명가의 위상을 이번 화정아이파크 재시공을 통해 되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빈틈 없고 철저한 재시공으로 지역민과 국민이 입은 충격과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한다. 안전과 신뢰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 재 욱 논설실장 이 용 환 편집국장 박 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